

KWDI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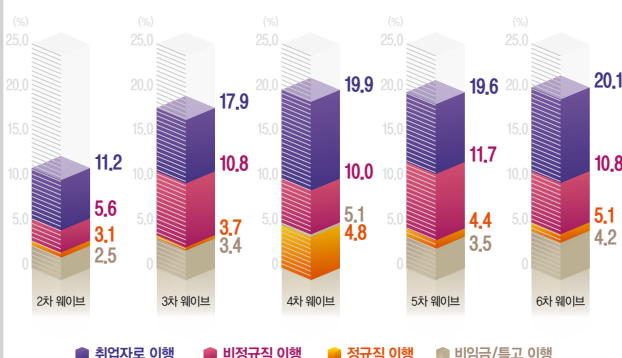
수행과제명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과제책임자 주재선 연구위원(Tel: 02-3156-7192 / e-mail: jjs2000@kwdimail.re.kr)

여성가족패널로 본 여성 삶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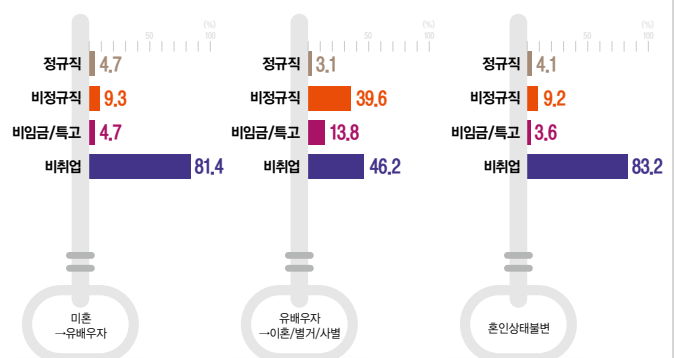
초록

-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는 2006년부터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일자리 변화를 파악할 목적으로 조사되는 패널조사임.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기존 종단조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이로 인한 일-가정 양립 파악, 우리 사회 가족의 현재와 미래 전망,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 보육,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대해 대응하여 설계됨.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도에 전국 9,068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 여성 9,997명을 표본을 첫 조사를 완료한 이래 2017년 현재 6차 웨이브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임. 금년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2년차 연구이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6차 웨이브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실사를 완료하고 6차 웨이브 패널의 기초특성을 분석했으며, 둘째 1~6차 웨이브 패널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심층연구를 실시 하였음. 셋째, 패널의 대표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신규패널추가를 실시했고, 패널관리와 7차 웨이브 조사를 위해 중간 필드워크(interim fieldwork)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외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1~6차 웨이브 데이터 구조를 통일하고 여성가족패널브리프를 발간(연 2회)하여 패널 홍보와 활용을 높이고자 하였음.

차수별 비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률



혼인상태 변화별 비취업 여성의 일자리 이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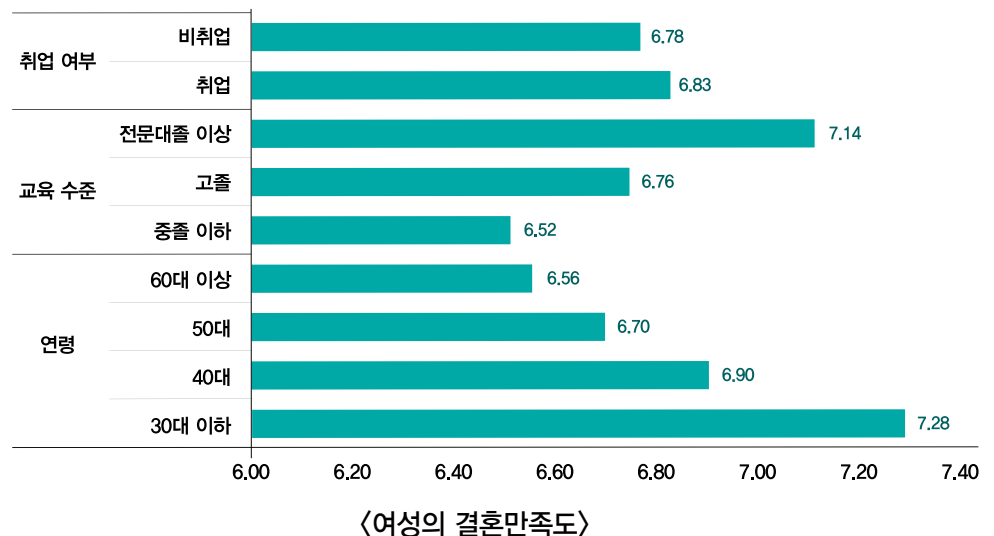
1. 배경 및 문제점

- ☑ 우리나라 여성의 삶은 남성과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남.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시장 관련 요인들뿐만 아니라 가족구조,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 및 관계, 사회 및 문화적인 의식과 관습 등 노동시장 밖의 요인의 변화 등과 연관되어 다양하게 발생하게 됨.
- ☑ 이러한 여성 삶의 변화에 대한 종단조사를 통해 구축해야 하며, 노동패널조사 등 기존 패널조사를 통해 일부 구축할 수 있으나, 이들 패널 조사는 대부분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거나 여성 사례수가 부족하여 여성의 하위집단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더욱이 이들 조사는 여성의 삶에 분석하기 위한 최적화된 조사도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여성 삶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음.
- ☑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일자리 등의 변화실태를 파악하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패널조사인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를 기획하고 2007년부터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도에 전국 9,068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 여성 9,997명을 표본으로 시작하여 2017년 6차 웨이브 조사를 완료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가족생활과 가치관

- ▶ 미혼자의 결혼의향을 보면 30대가 56.9%로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음.
- ▶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81점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2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6.90점), 50대(6.70점)의 순임. 취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10명 중 9명은 남편을 신뢰하지만, 남편과 대화나 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는 10명 중 7명으로, 부부간 대화나 소통은 적은 현실을 말해줌. 동반활동 빈도가 낮은 활동은 '부부가 같이 사회봉사 및 공동체 참여하기', '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하기'임. 가사노동은 대체로 아내가 수행하고 있으며, 남편이 가사노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하는 빈도와 비교하여 매우 적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 초·중·고 자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1%, 미혼 성인자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비율은 6.3%, 기혼 성인자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비율은 2.9%임.
- ▶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 하는 비율은 미혼 성인자녀 43.7%, 기혼 성인자녀 17.7%이며, 금액은 미혼 성인자녀 57.52만원, 기혼 성인자녀 28.58만원임. 역으로 기혼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38.3%, 미혼 성인자녀는 14.5%이며, 금액은 미혼 성인자녀 43.35만원, 기혼 성인자녀 36.03만원임.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도움 여부와 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경제적 지원 제공		경제적 지원 수혜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받지 않는다
미혼	도움 여부	1,284(43.7)	1,654(56.3)	427(14.5)	2,511(85.5)
	금액	57.52	-	43.35	-
기혼	도움 여부	471(17.7)	2,193(82.3)	1,021(38.3)	1,643(61.7)
	금액	28.58	-	36.03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부여).

- ▶ 결혼가치관에서 동의 비율이 높은 항목은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은 중요하다(78.1%)', '결혼은 집안 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77.9%)',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76.4%)' 순임. 전반적으로 결혼 이외에 동거나 자녀출산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남.
- ▶ 여성가족패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51.2%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14.2%로 나타남.
- ▶ 주거지역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는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27.4%로 다소 높음.
- ▶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심리적·경제적 폭력 경험률은 3.0%, 신체적 폭력 경험률은 1.3%인 것으로 나타나며, 성희롱 경험률은 0.8%, 성범죄 경험률은 0.5%로 나타남.

📍 여성 경제활동

- ▶ 6차 웨이브 조사에 응답한 여성 취업자는 4,267명이며, 이 중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19.3%,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가 18.6%,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가 1.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3.7%로 나타남.
- ▶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80.64만원으로 가장 많고, 비임금근로자 172.69만원, 임금근로자 167.53만원 순으로 나타남. 종사상지위별로 볼 때 임금근로자의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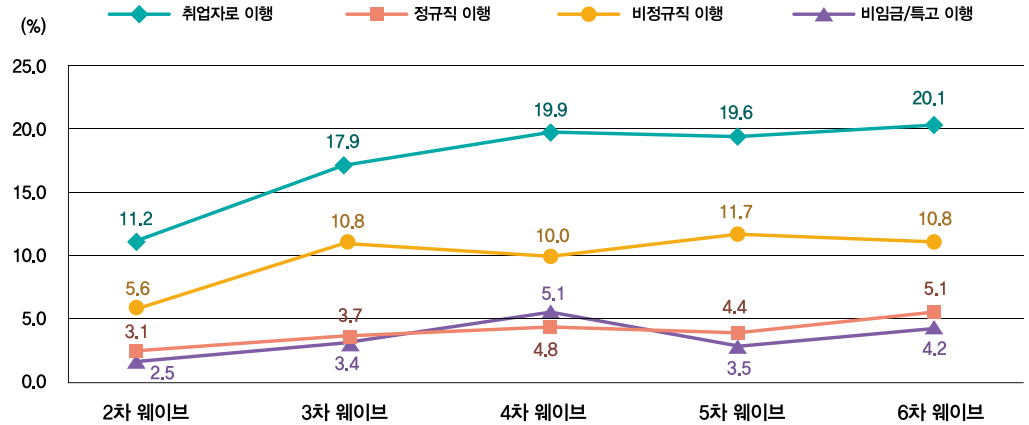
수준이 가장 낮는데, 이는 여성가족패널이 고령화되면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 ▶ 주 평균 근로시간은 비임금근로자가 43.91시간으로 가장 많고, 임금근로자 39.42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6.05시간으로 나타나고, 출퇴근 소요시간은 고용상태에 있는 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44.70분과 40.09분으로 비슷했지만,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비임금근로자는 19.73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 ▶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이 44.6%이고 비정규직이 55.4%이었고, 전일제로 일하는 여성은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남.
- ▶ 비임금근로자 중 응답한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이나 이윤이 너무 적다'(61.9%)는 것이고, '일의 보람이 적다'(43.1%), '일의 장래성이 밝지 않다'(42.4%),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40.2%) 등에서 40% 이상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낌.
- ▶ 여성 취업자는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라는 항목에 91.2%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고,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86.3%),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85.1%)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을 함. 한편 73.2%의 여성은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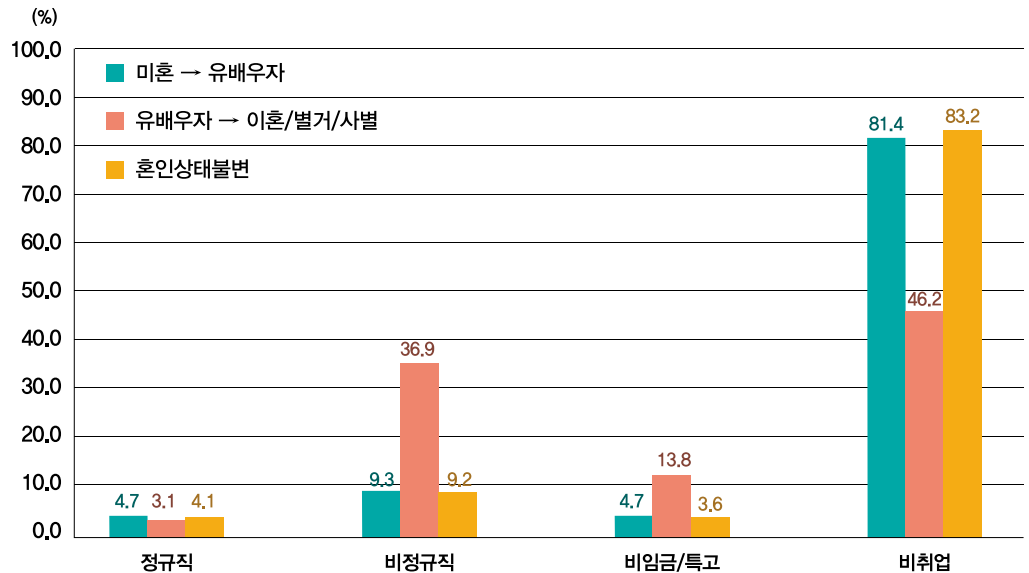
📍 비취업 여성의 근로형태 이행과 결정요인분석

- ▶ 이 연구는 1~6차 웨이브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비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률을 파악하고 취업으로의 이행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음. 이행 결정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활용했던 자녀요인을 미취학자녀와 초·중·고 자녀로 세분하여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진입 특성과 혼인상태의 변화가 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 또한 노동시장으로 이동된다면, 이들의 일자리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함.
-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연령별로 20대가 가장 높고,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여 정점을 이루는 40대가 그 다음으로 높음. 단지, 20대의 경우에 정규직으로의 이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의 경우는 비정규직으로의 진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둘째,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비율이 높아지나, 대졸 이상에서는 정규직과 비임금/특고로의 이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졸은 비정규직으로의 이행비율이 높음. 이를 일자리 유형별 노동시장 진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보아도, 중졸 이하 비취업 여성에 비해 대졸 비취업자는 비정규직으로의 이행 확률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반면에 고졸은 중졸 이하 집단에 비해 비정규직으로의 이행에서 유의미한 특성을 보였음. 셋째, 혼인상태는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임. 이에 본 연구는 혼인상태 변화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본 결과, 미혼에서 유배우로의 상태변화는 노동시장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유배우 상태에서 사별/이혼/별거 상태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음. 그러나 이 경우도 경력단절 등을 경험한 비취업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일자리는 비정규직과 비임금/특고로의 이행에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음. 넷째,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노동시장 진입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고, 일자리 유형으로는 정규직과 비임금/특고로의 이행에서 비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남편 소득은 높을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이행확률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음. 다섯째, 자녀의 효과의 경우 미취학자녀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기혼여성의 취업 이행 확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초·중·고 자녀는 취업 이행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초·중·고 자녀는 비정규직으로의 이행에만 영향을 주었고, 정규직 혹은 비임금/특고로의 이행에는 유의미한 상승효과를 주지 못했음.

〈차수별 비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혼인상태 변화별 비취업 여성의 일자리 이행 현황〉



📍 기혼이행 집단의 특성과 결혼가치관 변화

- ▶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에서 기혼이행 집단과 미혼지속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고, 결혼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기혼이행 집단의 결혼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고 있음. 1차 웨이브 조사 당시 미혼이었던 집단을 대상으로 기혼이행 집단과 미혼지속 집단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비교하고 결혼이행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며, 기혼이행 집단의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변화에 대해 분석함.
- ▶ 기혼이행 집단과 미혼지속 집단의 특성 비교 결과, 두 집단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이행이 낮고, 고학력일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두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고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상태,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의 훈육태도 등 성장과정에 있어서는 미혼지속과 기혼이행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이행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 결혼가치관이 유의미함. 연령은 어릴수록, 교육수준은 대졸과 비교하여 전문대졸이, 경제적 상태는 어려울수록, 결혼가치관은 결혼에 긍정적일수록 결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여성의 환경 영향요인

- ▶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건강 및 건강행위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한국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여성가족패널 자료 중 여성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 4차, 5차, 6차의 횡단면 자료조사 형태를 조사대상자경험중단 자료 구조로 변환시켜 Kaplan-Meier 분석과 Cox 회귀분석을 활용함.
- ▶ 연구 결과 여성의 환경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건강 및 건강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됨.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미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관리/전문직/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환경을 경험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고,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와 주관적 체형을 '비만' 혹은 '매우 비만'으로 인지하는 경우, 건강행위에서는 음주를 하는 경우와 흡연을 하는 경우 환경을 경험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 여성의 환경은 중년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인 만큼 본 연구에서 규명된 사회인구학적, 건강 및 건강행위 영향요인으로 환경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대상자군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맞춤형 케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3. 정책제언

♥ 비취업 여성의 근로형태 이행과 결정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 ▶ 첫째, 비정규직의 임금 개선이 필요함 비취업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이행은 초·중·고 자녀가 있는 경우, 유배우 상태에서 이혼/사별/별거로 혼인상태가 변할 경우, 남편이 일하는 경우(임금 혹은 비임금) 그 확률이 더 높아짐. 하지만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집단의 가구소득은 가장 적음. 이는 유배우 여성이 혼인상태 변화로 인해 남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사라진 경우도 있으나, 남편이 일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이행한 후 본인의 소득 자체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함. 2016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 여성이 10,008원, 정규직 여성 13,719원, 비정규직 남성 14,189원, 정규직 남성 20,815원이었음. 즉, 여성은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남성보다 시간당 임금이 적고,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여성과 비교해서 시간당 3,711원이 더 적음. 특히 비취업 여성이 이혼/사별/별거로 인해 혼인상태가 변화될 경우,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다수인 이들 여성들에게 낮은 임금은 이들을 저소득계층으로 추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더불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점검도 향후에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 ▶ 둘째, 일가족 양립 환경 구축은 비정규직까지 포괄하여 확대 적용되어야 함. 기혼여성의 취업 이행이 미혼여성보다 낮지만, 혼인상태가 미혼에서 유배우자로 변하는 것 자체가 노동시장 진입 혹은 이탈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미취학자녀가 있을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음.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완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취학자녀 효과는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더욱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경력단절 여성은 미취학자녀 효과가 정규직으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의 이행에까지도 유의미하게 음의 효과를 보임. 비정규직으로의 이행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통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분석에서도 비정규직으로의 이행이 정규직에 비해 2.5배 이상으로 나타남. 이에 일가족양립 환경 구축이 비정규직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한국 여성의 환경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 ▶ 여성의 환경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건강 및 건강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됨. 이에 여성의 환경은 중년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인 만큼 이 연구에서 규명된 사회인구학적, 건강 및 건강행위 영향요인으로 환경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대상자군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맞춤형 케어가 제공되어야 함.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길라잡이 사이트를 통해 금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남성, 여성, 청소년 및 아동으로 이용자를 분류하여 각각의 인구집단에 대한 맞춤형 금연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금연길라잡이와 같이 여성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준비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된 환경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 📍 여성정책의 핵심적 사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경제적 자립 증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빈곤화 방지 등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 가족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고 가족의 객관적 사항에 의거한 가족정책수립이 가능.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의 수립과 현재 가족문제의 핵심적 사항들인 보육, 이혼, 동거, 가족의 다양화, 저출산, 노인부양, 빈곤 문제 등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 향후 다양한 집단의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 등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체계적인 인력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